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남 태 우(Tea-Woo Nam)*

이 진 영(Jin-Young Lee)**

< 목 차 >

I. 서론	III.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의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주제 영역별 분포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2. 간행시기별 분포
II.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 분석	3. 학술지별 분포
1. 국내의 기록관리 기관 및 학자들의 주제영역	4. 연구자별 분포
2. 국내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IV. 결론 및 제언
3.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안)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로 밝혀졌으며, 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주제 영역의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1997-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분석대상의 논문은 학술지별, 연구자별로 주제영역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키워드: 기록관리학,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기록관리학 학술지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and future development plan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the thesi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journals in Korea according to subjects, issue periods, journals and researcher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core subject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have been identified as law, establishment/policy, preservation an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subject fields have come diverse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econd,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roductivity of research thesi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increases as time goes by, and, especially, it improved by a big margin during 1997-2001. Third, the subject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re generally comprehensiv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ubject fields among the thesis that have been researched.

Keywor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Tren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Journal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제1저자)

** 외교통상부 사서(endearing7@naver.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5월 18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이라 함)이 제정됨과 더불어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학 이라는 학문도 제정립되었다. 이처럼 기록관리학이 제정립된 후 현재까지 9년 동안 기록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학문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성장 도모를 위한 발판으로 기록관리 학회들이 생겨났다. 동시에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는 학회지나 전문학술지가 창간되었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기록보존』, 한국기록관리협회에서 발간한 『기록관리보존』, 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한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총 4종이며, 1987년 기록보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앞서 설명한 4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은 399편이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문의 발전과 학술지는 서로 상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계속 누적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학문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 학문의 성장과정을 되짚어 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누적되어온 연구결과에 대해 추적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양상과 연구동향 및 학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논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 분야의 동향을 조명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 4종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파악하고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연구영역의 발굴과 침체된 주제영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제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이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영역의 파악과 잠재되어 있던 연구영역의 발굴 등 국내 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설정하였다.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은 국내외 기록관리학 학자들의 주제영역과 국내외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홈페이지 조사 분석을 바탕

으로 1999년 제정된 <기록관리법>에 제시된 교과과정을 적용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 연구논문 총 399편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로 통계 분석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포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학 논문은 분석 대상 학술지 외에도 문헌정보학 등 타 분야 학술지에도 상당수 발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로 제한하였다.

II.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 분석

이 연구의 연구대상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외 학자들과 기관이 제시한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과 국내외 아키비스트 또는 레코드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종합하였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설정하였다.

1. 국내외 기록관리 기관 및 학자들의 주제영역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 기록관리학 학자들과 기관이 제시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¹⁾는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²⁾”라는 지침서에서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 구분을 크게 기록관리 전문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에 관한 핵심기록관리 지식(Core Archival Knowledge)과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지식인 학제적 지식(Interdisciplinary Knowledge)으로 나누었다.³⁾ 핵심지식은 기록관리 기능의 지식, 전문적 지식, 상황적 지식 등 3개의 영역과 13개의 핵심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학제적 지식은 정보기술, 보존, 연구 설계와 수행, 역사와 역사적 방법론, 경영학, 조직이론, 교양과목, 관련 전문직 등 8개의 핵심주제로 구분하였다.

SAA의 교육지침서는 기록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제시하면서 관련 지식

1) SAA Home page, <<http://www.archivists.org/>> [cited 2008. 10. 4].

2)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2002, [cited 2008. 10. 4].

3) 정연경,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3권, 제2호(2003. 9), pp.42-43.

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제적 지식에 비해 핵심기록관리 지식을 상세하게 나열하였다.

ACA(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⁴⁾는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⁵⁾”에서 SAA와 마찬가지로 지식영역을 크게 기록관리 전문가가 알아야 할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필수적인 업무지식인 핵심 업무 나누었다. 일반적 지식은 기록물발전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경향, 기록의 개념, 용어, 원칙, 기록관과 프로그램 발달 등 13개의 지식으로 구분하였고, 핵심업무는 기록물 선정, 평가, 수집, 기록물 정리와 기술, 기록물 공개열람 서비스 등 7개의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ACA에서 제시한 기록관리학의 지식 범주는 각 범주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SAA보다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핵심 업무보다 일반적인 지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록관리 전문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하고 있다.

Cox⁶⁾는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등의 관련 학술저널과 단행본 연감 등을 대상으로 미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학의 주제 영역을 정리와 기술, 기록관리의 역사, 조직, 활동, 현용기록물 관리, 아카이브즈 활용 및 역사적 매뉴스크립트, 일반문헌 보존, 복구, 보관, 포토그래픽 과정 응용 평가와 폐기, 훈련과 전문가 양상, 물리적으로 특수한 현대의 기록물과 매뉴스크립트, 역사적기록물 편집과 도큐먼트 출판 등 11개의 주제영역을 제시하였다. Cox의 주제영역은 기록관리의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기록물 기능들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관에 대한 활동들에 중요성, 또 훈련과 교육을 통한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Brichford⁷⁾는 기록전문저널 1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진본성, 평가, 정리, 기술, 물리적 보존, 설립과 활용 등 5개의 주제영역을 제시하였다. Brichford의 주제영역 또한 Cox와 마찬가지로 기록물 생애주기와 관련된 기록물 기능들과 기록관의 설립 등에 대한 측면과 진본성과 같은 이론적인 영역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Gilliland-Swetland⁸⁾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아카이브즈 및 기록관리, 컴퓨터, 역사, 기타 등 5개의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학문 영역을 제시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컴퓨터 관련 주제영역이 새롭게 보강된 것으로 컴퓨터의 등장은 전자기록물의 출현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통적인 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에 대한 연구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4) ACA Home page, <<http://www.certifiedarchivists.org/>> [cited 2008. 10. 6].

5)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 2006, [cited 2008. 10. 6].

6) Richard J. Cox, “Amrican Archival Literature: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1901-1987,” *Amrican Archivist* Vol.50, No.1(Summer 1987), pp.306-323.

7) Maynard Brichford, “Who Are the Archivists and What Do They Do,” *American Archivist*, Vol.51(Winter/Spring 1988), pp.106-110.

8) Anne J. Gilliland-Swetland, “Archivy and the Computer: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Periodic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Vol.17, No.2(1992), pp.95-112.

Couture⁹⁾는 기록관리학 관련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함께 수행하여 사회/역사/법제도, 아카이브즈의 기능과 운영(서비스), 정보기술과 전자기록물, 기타 등 4개의 영역과 7개의 핵심주제를 제시하였다. Couture의 주제영역은 전자기록물 관리와 함께 사회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록관 운영에 대해서도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Couture와 Ducharme¹⁰⁾는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들과 학술회의 텍스트, 논문 초록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기록관리학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의 목적, 아카이브즈와 사회, 아카이브즈와 기록학의 역사, 기록물의 기능,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경영, 기술, 매체와 아카이브즈 유형: 전자기록물, 아카이브즈 환경, 아카이브즈와 관련된 기타 세부주제 등 9개의 영역과 25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Couture와 Ducharme의 주제영역은 기존에 학자들이 제시한 주제영역보다 훨씬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학문으로 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연경¹¹⁾은 미국의 기록관리학 프로그램과 교육지침서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나타난 공통 영역 및 주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지식, 핵심지식, 보충지식, 실무지식, 연구지식 등 5개의 영역과 16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정연경의 주제영역은 기록관리학의 이론과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무의 중요성이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김희정¹²⁾은 국내와 미국에서 발간된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학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여 국내의 주제영역을 법제도/정책 기관/기능, 기록물 기술, 디지털보존/전자기록물 관리 등 4개의 영역과 8개의 핵심 주제로 제시하였다. 김희정의 국내 주제영역은 기록관리 발전방향 및 정책, 교육 인력제도 등 법과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재운 등¹³⁾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5종을 대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지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디지털보존, 지식관리와 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기술/목록, 대학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중국 당안학, 기록물 분류, 인쇄자료 보존, 사경 분석, 기록관리 정책/제도, 기록관리학 영역/교육 등 12개의 영역과 21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재운 등의 주제영역은 전자기록관리 디지털보존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록정보서비스

-
- 9) Carol Couture, "Education and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General Tendencies," *Archival Science*, Vol.1, No.2(June 2001), pp.157-182.
- 10) Carol Couture, Daniel Ducharme,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Vol.59(Spring 2005), pp.41-67.
- 11) 정연경, 전제논문, p.47.
- 12) 김희정,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219.
- 13)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346-368.

분야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2. 국내외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학의 교과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Simmons College¹⁴⁾는 문헌정보학 세부전공으로 기록물관리 전공과 보존 전공으로 운영하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공필수 과목마다 인턴십 60시간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Michigan¹⁵⁾은 정보학 대학원 석사과정 내에 기록관리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기초 필수에 핵심과목을 지정하고 있고 다양한 실습을 포함하여 전자기록관리, 디지털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학제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¹⁶⁾는 도서관, 기록관리학, 정보학 대학원의 명칭으로 독립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고 있고 선택과목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University of McGill¹⁷⁾은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의 세부전공으로 기록관리학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고 실무적인 교과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지역과 다른 학문적 양상 보이고 있는데, University of London의 Schoo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SLAIS)¹⁸⁾는 아키비스트나 레코드 매니저가 되기 원하는 학부졸업생을 위한 국내/국제 과정으로 된 석사과정이 있고, 필수 7과목과 선택 1과목, 그리고 1년간의 논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 관련 과목에 편중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iversity of Liverpool의 Master/Diploma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MARM)¹⁹⁾는 국내 기록관리 전공과 국제 기록관리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고 레코드키퍼링 관련 과목을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록관리 전공으로 나누어 국내 기록관리 전공은 역사 고서체학 중심의 교과과정 국제 기록관리 전공은 레코드키퍼링 중심의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지대²⁰⁾는 기록

14) Simmons College Home page, <<http://my.simmons.edu/>> [cited 2008. 10. 10].

15) Michigan University Home page, <<http://www.si.umich.edu/>> [cited 2008. 10. 14].

16) British Columbia University Home page, <<http://www.slais.ubc.ca/>> [cited 2008. 10. 14].

17) McGill University Home page, <<http://www.mcgill.ca/>> [cited 2008. 10. 14].

18) London University Home page, <<http://www.ucl.ac.uk/>> [cited 2008. 10. 17].

19) Liverpool University Home page, <<http://www.liv.ac.uk/>> [cited 2008. 10. 14].

20)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mju.ac.kr/>> [인용 2008. 10. 15].

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세부전공으로 기록관리 전공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필수에 실습과목을 넣어 실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응용소프트웨어패키지연구,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 같이 전자기록관리에 관련된 과목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

서울대²¹⁾는 학과 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뉴스크립트 관리에 대한 교과목의 설정이 특징적이나 교과과정이 협소하며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과목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화여대²²⁾는 정책과학대학원에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고서형태론, 고전강독, 한국의 인쇄문화 등 학제적 성격의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어 있으며 지식관리에 대해서도 세분화 되어 있다.

중앙대²³⁾는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기록물관리 이론 및 실습을 전공필수로 선정하여 전자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였고, 교과목의 다양한 구성이 요구되며 현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²⁴⁾는 정보기록관리학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및 실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다른 학교 교과과정과는 다르게 선택과목 지정하고 있으며 행정권과 기본권, 행정관리론, 행정법 등 행정관련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한양대²⁵⁾는 정책과학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법>에서도 시행규칙 별표 16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교과과정 교과기준²⁶⁾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법>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기틀을 세우고 학문의 정착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법률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령에 제시된 교육과정 교과기준은 기초영역, 전문영역, 업무영역, 실습 및 논문지도 등 넷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교과내용을 제시하였다.

21)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nu.ac.kr/>> [인용 2008. 10. 15].

22)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ewha.ac.kr/>> [인용 2008. 10. 15].

23)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cau.ac.kr/>> [인용 2008. 10. 15].

24)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ufs.ac.kr/>> [인용 2008. 10. 15].

25)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인용 2008. 10. 16].

26)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부록 제16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교과과정 교과기준>.

3.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안)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의 설정을 위해 국내외 기관 및 학자들이 제시한 주제 영역을 종합하고 국내외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을 종합하여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을 우리나라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한 4개의 핵심영역을 1차 영역으로, 주제영역을 2차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 기록관리학 주제영역 설정(안)

핵심(1차) 영역	주제(2차) 영역	
1. 기초영역	① 정부조직론/행정조직론	② 행정법
2. 전문영역	① 고서체학 ② 기록과 사회 ③ 기록과 역사 ④ 기록관리적 윤리 ⑤ 기록관설립/운영론 ⑥ 기록관기능/역할 ⑦ 기록관설비/장치 ⑧ 기록관리교육/기록관리전문가양성	⑨ 기록관리학 이론/개론 ⑩ 기록물 수집/선별 ⑪ 기록물 정리(분류)/기술 ⑫ 기록물 평가 ⑬ 메타데이터연구 ⑭ 전자기록관리론(시스템) ⑮ 특수기록물(시청각기록물) 관리 ⑯ 한국고문서/구술사료연구
3. 업무영역	① 기록관리법·제도/정책 ② 기록정보서비스론 ③ 디지털 보존	④ 인쇄자료 보존 ⑤ 전자기록물 보존 ⑥ 지식(정보)관리
4. 실습 및 논문지도	① 기록관리실습	② 논문지도/연구방법론

Ⅲ.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의 분석

이 장에서는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가 처음 발행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 4종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기록관리 학문에 관련된 논문 총 399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제별 분포, 간행시기별 분포, 학회지별 분포, 연구자별 분포를 통계 분석 한다.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기록보존』 129편, 『기록관리보존』 56편 『기록학연구』 104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0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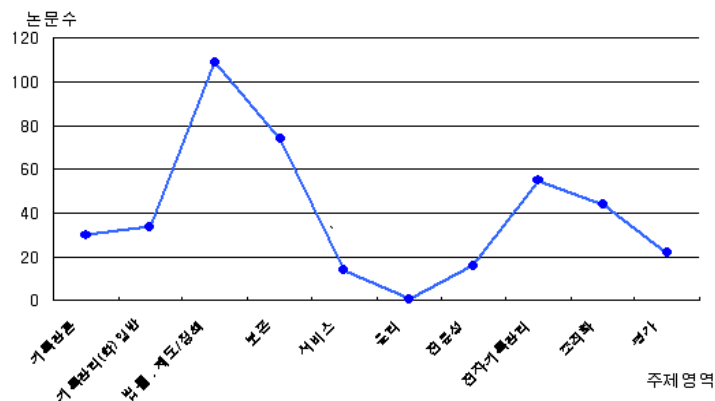
1. 주제 영역별 분포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분포

주 제 영 역	편 수	비율(%)
기록관론	30	7.5
기록관리(학)일반	34	8.5
법률·제도/정책	109	27.3
보존	74	18.5
서비스	14	3.5
윤리	1	0.3
전문성	16	4.0
전자기록관리	55	13.8
조직화	44	11.0
평가	22	5.5
계(편)	399	100.0

상기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이 주목한 주제영역을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법률·제도/정책(27.3%), 보존(18.5%), 전자기록관리(13.8%), 조직화(11.0%), 기록관리(학)일반(8.5%), 기록관론(7.5%), 평가(5.5%), 전문성(4.0%), 서비스(3.5%), 윤리(0.3%)이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이 주제영역의 순위와 그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우리나라에 기록관리학이 도입된 역사와 시대적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이 초창기인 만큼 법이나 제도의 정착이 시급 했으므로 법률·제도/정책의 주제영역에 관한 연구가 많고, 기록물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활용의 측면보다 보존의 측면이 중요시 되던 때라 보존분야의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었다고 판단 된다. 또한 전자기록관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최근사이 연구가 도드라지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2〉를 근거로 〈그림 1〉을 작성하였다.



〈그림 1〉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분포

상기 <그림 1>과 같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집중적인 주제영역과 소외된 주제영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관리학의 발전과 함께 주제 영역별 분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기록관리는 기존의 문서관리에 국한된 개념에서 업무상의 공적 행위와 그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문과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일어나고 대학원의 신설과 전문가의 육성 등 괄목할 만한 외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이 연구된 주제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영역을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로 구분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3> 학술지 논문의 <기록관리법> 제정 전후 주제영역별 분포

주 제 영 역	기록관리법 제정 전		기록관리법 제정 후		계(편)	
	편 수	비율(%)	편 수	비율(%)	편 수	비율(%)
기록관론	0	0.0	30	8.9	30	7.5
기록관리(학)일반	10	16.1	24	7.1	34	8.5
법률·제도/정책	25	40.3	84	24.9	109	27.3
보존	16	25.8	58	17.2	74	18.5
서비스	0	0.0	14	4.2	14	3.5
윤리	0	0.0	1	0.3	1	0.3
전문성	2	3.2	14	4.2	16	4.0
전자기록관리	3	4.8	52	15.4	55	13.8
조직화	0	0.0	44	13.1	44	11.0
평가	6	9.7	16	4.7	22	5.5
계(편)	62	100.0	337	100.0	3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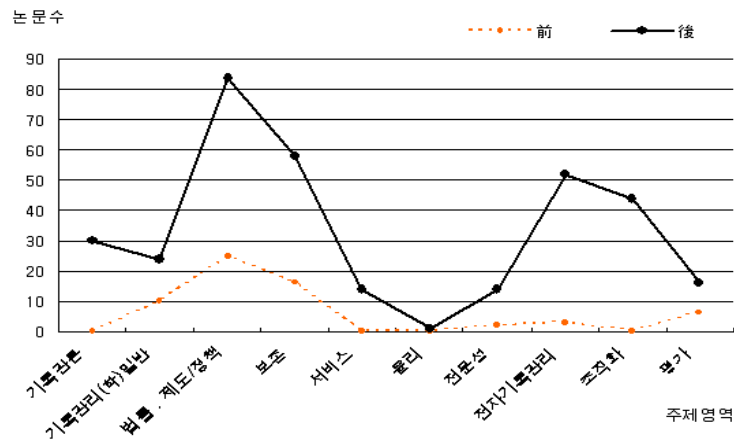
상기 <표 3>과 같이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 연구된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은 백분율 순위에 따라 법률·제도/정책(40.3%), 보존(25.8%), 기록관리(학)일반(16.1%), 평가(9.7%), 전자기록관리(4.8%), 전문성(3.2%)의 순이었으며, 기록관론, 서비스, 윤리,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은 주로 법률·제도/정책, 보존, 기록관리(학)일반 등 3개 주제영역(82.2%)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 연구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은 백분율 순위에 따라 법률·제도/정책(24.9%), 보존(17.2%), 전자기록관리(15.4%), 조직화(13.1%), 기록관론(8.9%), 기록관리(학)일반(7.1%), 평가(4.7%), 서비스(4.2%), 전문성(4.2%), 윤리(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

은 확대되어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 조직화, 기록관론 등의 5개 영역(79.5%)에 집중되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이나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여 법률·제도/정책의 주제영역에 관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록물의 패러다임이 보존의 측면이 중요시 되었으며, 기록관리학의 전반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기틀과 학문의 정착이 미흡했으므로 기록관리(학)일반 분야와 같은 학문의 근본과 이론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집중되던 주제영역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세부 주제 영역들이 연구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주제가 급성장세를 보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학문의 연구주제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의 제정 이전에는 전혀 연구되지 않던 조직화 영역의 연구가 도드라지게 증가 했는데, 이는 법의 제정과 함께 기록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체제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역설해 주고 있다. 그 밖에 이전에는 연구되지 않던 서비스, 윤리, 조직의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제도의 정립과 정착을 위해 달라진 학문의 연구동향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위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기록관리법>제정 전후의 주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술지 논문의 <기록관리법> 제정 전후 주제영역별 분포

상기 <그림 2>와 같이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학문의 연구가 법률·제도/정책과 보존의 영역에 중점적 이고, 윤리와 서비스의 영역은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학)일반 영역은 법 제정 이전에는 증가했던 반면 법 제정 이후

하락 하였는데, 이것은 법 제정 이전에는 학문의 정착이 시급했으므로 학문의 이론과 근본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법이 제정되고 학문이 정착되어 갈수록 이론적인 연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 영역은 법 제정 이전 하락했던 반면 법 제정 이후 증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학이 법 제정 후 점차 전문적인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연구논문 수는 법 제정 이전에 비해 법 제정 이후에 게재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주제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기록관리법> 제정과 더불어 기록관리학의 주제 영역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연구 대상 학술지의 논문의 주제 영역이 상관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독립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학술지 논문의 <기록관리법> 제정 전후 주제영역별 독립성 검증 결과

독립성 검증	χ^2	자유도(d.f)	유의확률(양측검정)
		34.67232	9

상기 <표 4>와 같이 독립성 검증한 결과 χ^2 값이 34.67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기록관리법>의 제정 시기가 연구 논문의 주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키워드를 조사하여 키워드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기록관리학의 발전과정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 중 키워드가 설정된 논문이 161개 키워드가 설정되지 않는 논문은 238개로 조사되었다. 키워드가 설정된 논문을 토대로 논문의 첫 번째 제시된 키워드를 1차 키워드 두 번째 제시된 키워드를 2차 키워드로 구분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상위 3순위의 키워드 목록을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학술지 논문의 상위 빈도 키워드

	상위 빈도 키워드		빈도	비율(%)
	순위	키워드		
1차 키워드	1	기록관리	9	5.6
	2	평가	4	2.5
	3	대통령기록관, 전자기록물	3	1.9
2차 키워드	1	기능분류	3	1.9
	2	메타데이터	3	1.9
	3	보존, 전자기록	3	1.9

상기 <표 5>와 같이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1차 키워드 중 최다 빈도 상위어는 기록관리가 9회(5.6%)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2위는 평가 4회(2.5%), 3위는

대통령기록관, 전자기록물 3회(1.9%)로 나타났다. 기록관리는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고 판단된다.

2차 키워드 중 최다 빈도 상위어는 기능분류, 메타데이터, 보존, 전자기록이 각각 3회(1.9%)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수가 3회인 것으로 보아 2차 키워드는 중복이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뚜렷하고 주도적인 주제 영역이 대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4개 학술지의 전체 키워드 161개를 대상으로 주제 영역에 따라 소속된 색인어를 1차 키워드와 2차 키워드로 나누어 나열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소속 키워드

주제영역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기록관론	사립대, 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지방공문서관, 열람환경, 독일경제 아카이브즈	아카이브즈, 특수기록관, 미국, 정부기록보존소, 문서관, 열람 서비스, 외국 아카이브즈
기록 관리 (학) 일반	사경, 海覽篇, 기록, 三國遺事, 대한불교조계종, 宋名臣言行錄, 구술사료, 문건당안일체화, 사진기록물, 러시아국립극동역사기록관, 기업기록물, 공공기록물, 지식경영, 기록관리	발원사경, 批點本 「海覽篇」, 아카이브즈, 염제신능, 익안대군 발원경, 중앙기록관, 八朝名臣言行錄, 구술사, 기록연속체, 다큐멘터리증거의가치, 단일국가기록포드, 보존기록물, 본질적 기록, 지식공유, 업무분석
법률 · 제도 / 정책	기록관리법의 개정, 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 러시아혁명, 교구 기록관, 거버넌스 기록관리, 중국, 기록관리법, 기록학 원칙, 거버넌스, 기록관리 주제, 기록유산, 수집형 아카이브즈, 여성정책, 정부기록보존소, 로컬 거버넌스, 미국 국가기록관리청, 과학기술종합지식 경영시스템, 공내부, 도시건설기록, 보존시설(장소), 지방공기업, 간행물, 기록, 기록관리, 기록관리기준표, 조선시대 기록관리, 기록관리표준, 公文書, 데이터세트, 국가기록포드, 북한비공개 기록, 행정정보공표, 러시아 아카이브즈, 레닌, 역사주의, 알권리, 보존문서정리사업, 조선총독부,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 외교기록, 건설기록물	<국가기록원>의 위상 제고, 대통령기록물, 법규, 프랑스혁명의 회문서보관소, 1918년 기록관리법령, 가톨릭교회, 거버넌스, 국민정부, 기록관리 혁신, 기록학 방법론, 민주주의, 설명책임성, 세계기록유산, 수집, 여성단체 활동사, 영구보존문서정리, 정보정책, 지방자치, 지방의회, 캐나다 국가기록보존소(NAC), 공문서류, 과학기술기록, 국가기록원 표준, 기록관, 기록관리, 기록관리기관, 기록관리기준, 기록관리제도, 기록관리체계, 기록관리품질표준, 기록보존소, 起案, 데이터세트 아카이빙, 레닌, 문헌법, 비밀기록, 사전정보공표, 소비에트 연방 아카이브즈, 스탈린, 실종사학, 인도, 정보공개제도, 정부공문서분류표, 처무 규정, 칼라초프, 한일회담문서, ISO 15489
보존	당안유산, 도서관 회귀자료, 디지털라이제이션 전자기록물, 보존 메타데이터, 종이, 縑紙, 보림사, Methy1,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유산, 전자기록물, 이관, 전자문서 보존, 보존 정보패키지, 감도, 도시철도,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디지털화, 보존, 이미지프로세스, 영구보존, 전자기록 보존, 문서지, 뽕나무, 사천왕상, hromide, 디지털 레코드, 디지털보존, 보존, 이관절차모델, 전자문서 표준화, AIP, 노화가속장치, 도면, 자료보존, 환경통제
서비스	증언자료, 정보공개제도, 강제동원, 기록관 웹사이트, 기록관, 기록정보 활용,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 아카이브즈, 국가기록관리기관	6.25전쟁, 기록관리제도, 구술자료, 기록관온라인 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대통령기록관서비스, 미국립기록관리청, 보존 기록관, 정보조사제공, 질의응답서비스
윤리	윤리규정	아키비스트 윤리
전문성	기록관리교육, 교육용자료집, 기록관리교육, 기록관리학,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기록관리 전문직	교과과정, 기록보존소, 역사, 연구영역분석, 전문교육과정, 역할분석
전자 기록 관리	기록관리 혁신, 대학기록물관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 Process Bound Information,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록관리, 전자기록 원본, 포맷등록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DIRKS, Public image, 청와대홈페이지, 사진관리, 뉴미디어, 기록품질, 기록관리, 처분, 전자기록, 전자기록물,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전자기록철, 디지털유산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레코드킵핑 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 전자기록물, 진본 사본, 포맷레지스트리, 현용관리프로그램, CRS, news on archives and archivists, 대통령웹사이트, 대학아카이브즈, 방송, 전자기록, 처분스케줄, 평가, ERM software, 기록분류, 보존
조직화	EAD, 전자제어, 기록관리, 기록의 속성, 대학기록물, EAD,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기록정보, 현용전자기록물,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역사기록물, 교회기록, 기록분류체계, 시민단체 기록, 기록물 분류기준표, 공문서분류, 기록평가, 분류기준표, 분류체계, 기록물 정리	기록물 검색도구, 기록물 전자제어, 기록물처리일정표, 메타데이터, 출처정보, 탐색도구, Collection, 기록관리 엔티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공문서, 기능분류, 기록물처리일정표, 문서분류, 분류, 조직별 분류, 기록물기술
평가	수집정책, 기업사료, 평가, 거시평가, 평가선별, 기록평가선별, 총독부 기록, 평가, 독일의 기록관리, 평가	대학기록관, 사료관리, 역사기록, 가치분석, 기능분석, 기록라이프사이클, 도시계획, 기록, 선별, 아카이브링, 조선총독부, 광문서, 평가제도

상기 <표 6>과 같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별 소속된 키워드를 나열하였다. 이것을 통해 각 주제별로 어떤 키워드가 소속 되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키워드의 선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해당 주제 영역의 지식구조의 역동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학의 지식구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에 게재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1차 키워드는 기록관리, 평가, 전자기록물 등이며 2차 키워드는 기능분류, 메타데이터, 보존, 전자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제영역별로 소속된 키워드를 통해 어떤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등 기록관리학의 지식구조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4개의 학회지 논문에 게재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기록관리학의 중요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특징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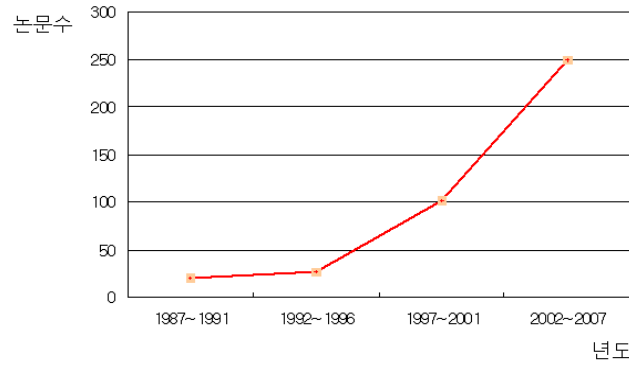
2. 간행시기별 분포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간행시기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5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7>을 작성하였다. 간행시기를 5년 간격으로 구분한 이유는 학문의 연구동향을 밝힌 선행연구 대부분이 5년 간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학문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도 5년 간격의 구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7> 학술지 논문의 5년 간격 간행시기별 분포

간행시기	편수	비율%
1987 - 1991	20	5.0
1992 - 1996	27	6.8
1997 - 2001	102	25.6
2002 - 2007	250	62.7
계(편)	399	100.0

상기 <표 7>과 같이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2001년 기간에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의 등장으로 인한 학회지 발간과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신설 등이 중요한 원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간행시기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7>을 근거로 <그림 3>을 작성하였다.



〈그림 3〉 학술지 논문의 5년 간격 간행시기별 분포

상기 〈그림 3〉과 같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1997-2001년 중 특히 1999년에 생산성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연구논문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로인해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학문의 전체적인 연구량도 증가되어 2002년까지 연구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3.1절에서 살펴본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의 분포와 간행 시기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술지 논문의 주제영역 및 간행시기별 독립성 검증 결과

독립성 검증	χ^2	자유도(d.f)	유의확률(양측검정)
	58.062	27	0.000

상기 〈표 8〉과 같이 χ^2 값이 58.062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의 간행시기는 주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간행시기별 분포를 〈기록관리법〉의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로 구분하여 〈표 9〉를 작성하였다.

〈표 9〉 학술지 논문의 〈기록관리법〉 제정 전후 간행시기별 분포

간행시기	편수	비율(%)
기록관리법 제정 전	62	15.5
기록관리법 제정 후	337	84.5
계(편)	399	100.0

상기 <표 9>와 같이 <기록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법 제정 이후가 법 제정 이전의 논문 생산성을 단기간에 증가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학이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3. 학술지별 분포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학술지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알아보기 <표 10>을 작성하였다.

<표 10> 학술지 논문의 학술지별 주제영역 분포

주 제 영 역	학술지별								계(편)	
	기록보존		기록 관리보존		기록학 연구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기록관론	9	7.1	8	14.3	10	9.4	3	2.7	30	7.5
기록관리(학)일반	11	8.7	2	3.6	12	11.3	9	8.1	34	8.5
법률·제도/정책	52	41.3	5	8.9	22	20.7	30	27.0	109	27.3
보존	22	17.5	26	46.4	7	6.6	19	17.1	74	18.5
서비스	1	0.8	0	0.0	6	5.7	7	6.3	14	3.5
윤리	0	0.0	0	0.0	0	0.0	1	0.9	1	0.3
전문성	2	1.6	1	1.8	4	3.8	9	8.1	16	4.0
전자기록관리	12	9.5	13	23.2	13	12.3	17	15.3	55	13.8
조직화	9	7.1	1	1.8	20	18.9	14	12.6	44	11.0
평가	8	6.3	0	0.0	12	11.3	2	1.8	22	5.5
계(편)	126	100.0	56	100.0	106	100.0	111	100.0	399	100.0

상기 <표 10>과 같이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별로 주요 연구 주제를 백분율의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기록보존』의 주제영역은 법률·제도/정책(41.3%), 보존(17.5%), 전자기록관리(9.5%), 기록관리(학)일반(8.7%), 기록관론(7.1%), 조직화(7.1%), 평가(6.3%), 전문성(1.6%), 서비스(0.8%) 순이고 윤리 영역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기록보존』은 윤리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록했으며, 앞서 살펴본 학술지 전체의 주제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사한 주제 영역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보존』의 주제영역은 보존(46.4%), 전자기록관리(23.2%), 기록관론(14.3%), 법률·제도/정책(8.9%), 기록관리(학)일반(3.6%), 전문성(1.8%), 조직화(1.8%)의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윤리, 평가의 영역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기록관리보존』은 다른 학술지들이 법률·제도/정책의 영역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게 보존영역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존 관련 주제는 기록관리학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준히 수행되어온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록학연구』는 법률·제도/정책(20.7%), 조직화(18.9%), 전자기록관리(12.3%), 기록관리(학)일반(11.3%), 평가(11.3%), 보존(6.6%), 서비스(5.7%), 전문성(3.8%)의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윤리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기록학연구』는 다른 학술지들이 공통적으로 보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게 보존 영역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법률·제도/정책(27.0%), 보존(17.1%), 전자기록관리(15.3%), 조직화(12.6%), 기록관리(학)일반(8.1%), 전문성(8.1%), 서비스(6.3%), 기록관론(2.7%), 평가(1.8%), 윤리(0.9%)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다른 학술지에서 다루지 않았던 윤리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였으나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보존』은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의 주제영역(68.3%)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기록관리보존』은 보존,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론의 주제영역(83.9%)에, 『기록학연구』는 법률·제도/정책, 조직화, 전자기록관리의 주제영역(51.9%)에, 마지막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의 주제영역(59.4%)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기록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3종의 학술지는 법률·제도/정책에 많은 연구 논문이 분포하여 있고, 『기록관리보존』에는 보존의 주제영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4. 연구자별 분포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 간행시기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표 11>을 작성하였다. 간행시기는 학문의 변화에 따라 5년 간격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정은 연구 대상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를 기준으로 하였고 동일 편수를 발표했을 때는 성명 순으로 하였다.

<표 11>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 간행시기의 분포 간행시기

연구자명 \ 간행시기	1987-1991	1992-1996	1997-2001	2002-2007	계(편)
L ¹	0	0	7	5	12
K ¹	0	0	2	8	10
Y ¹	0	5	3	2	10
L ²	0	0	2	6	8
K ²	0	4	3	0	7
C ¹	1	1	2	2	6

H ¹	0	0	3	3	6
K ³	0	0	0	5	5
P ¹	0	0	0	5	5
P ²	0	1	2	2	5
S ¹	0	1	4	0	5
L ³	0	0	1	4	5
L ⁴	0	0	1	4	5
L ⁵	0	0	3	2	5
C ²	0	0	2	3	5

상기 <표 11>과 같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를 게재빈도의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L¹, K¹, Y¹, L², K², C¹, H¹, K³, P¹, P², S¹, L³, L⁴, L⁵, C² 등 총 15명이다. 5년 간격의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문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¹은 1997-2001년에, K¹은 2002-2007년에 급격하게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반면 Y¹, K², L⁵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K², S¹은 2002-2007년 최근 한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¹은 1987-1991년 기록관리 학문이 재정립된 초창기부터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³, P¹은 2002-2007년 최근에 들어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 간행시기의 분포에 이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표 12>를 작성하였다.

<표 12>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 주제영역의 분포주제영역

주제영역 연구자명	기록 관론	기록관리 (학)일반	법률 제 도/정책	보존	서비스	윤리	전문성	전자기 록관리	조직화	평가	계
L ¹	2	1	4	1	0	0	1	1	0	2	12
K ¹	0	0	2	0	0	0	0	5	1	2	10
Y ¹	0	1	2	4	0	0	0	3	0	0	10
L ²	0	0	2	1	1	0	0	1	2	1	8
K ²	0	0	5	1	0	0	0	0	0	1	7
C ¹	0	0	1	1	0	0	2	0	2	0	6
H ¹	1	0	4	1	0	0	0	0	0	0	6
K ³	0	0	1	0	0	0	0	2	1	1	5
P ¹	0	0	0	2	0	0	0	2	1	0	5
P ²	0	0	0	5	0	0	0	0	0	0	5
S ¹	0	0	0	5	0	0	0	0	0	0	5
L ³	0	0	1	0	0	0	0	1	1	2	5
L ⁴	0	0	2	0	0	0	0	0	0	3	5
L ⁵	0	0	2	1	1	0	0	0	0	1	5
C ²	1	0	2	2	0	0	0	0	0	0	5

상기 <표 12>와 같이,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의 연구자별로 주제 영역의 분포를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L¹은 법률·제도/정책, K¹은 전자기록관리, Y¹은 보존, L²는 법률·제도/정책과 조직화, K²는 법률·제도/정책, C¹은 전문성과 조직화, H¹은 법률·제도/정책, K³는 전자기록관리, P¹은 보존과 전자기록관리, P²과 S¹은 보존, L³와 L⁴는 평가, L⁵와 C²는 법률·제도/정책과 보존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자별로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법률·제도/정책에 관한 주제영역이 일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술지 논문 연구자의 공동연구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공동연구자로 구분하여 <표 13>을 작성하였다.

<표 13> 학술지 논문의 공동연구별 분포

연구자수	편 수	비율(%)
1인	362	90.7
2인	29	7.3
3인	4	1.0
4인 이상	4	1.0
계(편)	399	100.0

상기 <표 13>과 같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공동 연구자수를 살펴보면 1인 단독연구는 362편, 2인 연구는 29편, 3인 연구는 4편, 4인 이상의 연구는 4편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단독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배합한 실용적인 학문의 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학회지별로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의 공동연구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표 14>를 작성하였다.

<표 14> 학술지 논문의 학회지별 공동연구의 분포

연구자수 \ 학술지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계
1인	123	51	101	87	362
2인	3	4	5	17	29
3인	0	0	0	4	4
4인 이상	0	1	0	3	4
계	126	56	106	111	399

상기 <표 14>와 같이 『기록보존』에는 단독연구가 123편, 2인연구가 3편, 3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없었으며, 『기록관리보존』에는 단독연구가 51편, 2인연구가 4편, 3인 연구는 없었고 4인 이상의

연구는 1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학연구』에는 단독연구가 101편, 2인 연구가 5편, 3인 이상의 연구는 없었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단독연구가 87편, 2인연구가 29편, 3인연구가 4편, 4인 이상의 연구는 3편에 달했다.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기록보존』이며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 나타났다.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 중 『기록보존』가장 오래된 학술지이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가장 최근에 창간된 학술지임을 인식해 볼 때 과거에 비해 현재 공동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이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에 앞서 분류된 연구대상 학술지 논문 399편을 기록관리학 주제 영역 설정(안)의 해당 주제영역에 매핑하면 핵심(1차)영역 중 기초영역에 포함되는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이 초창기인 만큼 현실적으로 시급한 주제 영역의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기초영역의 성격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 학회지 외 다른 학문 및 학회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영역에 포함되는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총 210편으로 고서체학을 제외하고는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주제에 집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직 윤리강령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의 빈도가 미미했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도 그 연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큰 주제이다. 반면 전문직 윤리강령이나 한국고문서/구술사료 연구 등 소외된 주제와 더불어 고서체학은 앞으로 연구자들의 관심과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총 188편으로 모든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었다. 그 중에서 기록관리 법·제도/정책에 관련된 주제가 우세하게 많았으며 인쇄자료나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련된 주제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록관리 법·제도/정책은 초창기 기록관리학의 재정립과 더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록관리학의 기틀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실습 및 논문지도에 포함되는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은 총 1편으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학문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발전해감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결과를 추적하여 연구동향 및 학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의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기록관리학의 주제영역을 설정하였고,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 4종을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하여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에 게재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1차 키워드는 기록관리, 평가, 대통령기록관, 전자기록물 등이며 2차 키워드는 기능분류, 메타데이터, 보존, 전자기록 등이다. ②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은 주제 및 간행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다. ③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주요 주제영역을 살펴보면 논문의 상당수(70.4%)가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 조직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④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주제 영역을 <기록관리법>의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 공통적으로 법률·제도/정책과 보존에 집중적이고, 윤리와 기록서비스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비해 제정 이후 발행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주제 영역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⑤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5년 간격으로 구분하였을 때, 특히 1997-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별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기록보존』은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63.8%)에 『기록관리보존』은 보존,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론(83.9%)에 『기록학연구』는 법률·제도/정책, 조직화, 전자기록관리(51.9%)에 마지막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59.4%)에 집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⑦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에 게재된 빈도가 상위권인 연구자는 L¹(12건), K¹(10건), Y¹(10건)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주요 주제영역은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물관리에 집중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⑧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 논문 중 공동연구의 분포는 단독연구가 압도적(90.7%)으로 나타났다. 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별로 단독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기록보존』이며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 확인하였고, 과거에 비해 현재 공동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⑩ 기록관리학 주제의 핵심영역을 <기록관리법>에 근거하여 기초영역, 전문영역, 업무영역, 실습 및 논문지도로 나누어 연구 대상 학술지 논문(399편)의 주제영역과 매핑한 결과 전문영역(210편)과 업무영역(188편)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특성 및 연구동향을 전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성장을 위해 잠재되어 있는 주제영역을 발굴하여 주제영역의 확장과 더 많은 동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희정.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07-224.
- _____.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2006. 12), pp.5-25.
-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p.9-32.
-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9), pp.379-408.
- 유사라. “주요 학술지 주제분석을 통한 정보학 연구동향 비교.”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 pp.179-197.
-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287-310.
-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345-372.
- 정연경. “미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12), pp.101-122.
- _____.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3권, 제2호(2003. 9), pp.34-51.
- 최정태.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향방 : 신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기록학연구, 제2호(2000. 6), pp.169-193.
- Brichford, Maynard. “Who Are the Archivists and What Do They Do.” *American Archivist*, Vol.51(Winter/Spring 1988), pp.106-110.
- Couture, Carol. “Education and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General Tendencies.” *Archival Science* Vol.1, No.2(June 2001), pp.157-182.
- Cox, Richard. J.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1901-1987.” *American Archivist*, Vol.50, No.1(Summer 1987), pp.306-323.
- _____. “Searching for Authority: Archivists and Electronic Records in the New World at the Fin-de-Science.” *First Monday*, Vol.5, No.1(2000).
- Gilliland-Swetland, Anne. J. “Archivy and the Computer :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Periodic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Vol.17, No.2(1992), pp.95-112.